



보리떡리

때 : '82.10.16 오후4시.7시30분
곳 : 국 립 극 장
주최: 中 央 日 報
후원: 반 도 식 품 주 식 회 사

제 1 부

보 리 피 리

문둥이,
소외되고 외면당한 그들,
깨어진 쪽박에 아픈 삶을 의지하고
취덩굴처럼 끈질기고 상놈의 피처럼 진하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간다.
인간이고 싶은 소망은 분노되어 하늘을 향해 외쳐 대지만,
그 하늘은 너무 먼가……
우리의 토속적 몸짓에서 우직하고 소박함을,
한뼉힘마저 초월하는 멋들어진 우리의 소리 (장타령, 농, 물장구, 설쇠)를
바탕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속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결혼풍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절규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하찮은 몸짓에서 부터 다양한
무용언어까지를 구사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자 하였다.

창 / 송순섭, 방성춘 단소 / 김영민



제2부

■ 多情

김현자외 12명

■ 마음

황병기 곡 (편집사용)
이송희 외 18명

■ 사랑아!

김영동 곡
김현자, 이상복

■ 悲歌

안일웅 곡
신욱자외 23명

